

여수, 공금횡령 신고자에 최대 1억 보상금

조례 제정... 80억 횡령 공무원 지인 등 91억 지급명령 신청

여수시가 시청 직원 김모(47)씨가 횡령한 80억대의 공금회수 대책으로 김씨가 은닉한 재산이나 관련 정보 등의 제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출한 조례안 명칭은 '여수시 공금횡령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횡령범 김씨부부 등이 은닉

한 재산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시민에게 환수액의 10% 이내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급액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상임위(기획자치위)를 통과하면 26일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김씨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횡령총액을 초과한 91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해 집행권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공금 횡령 규모가 80억7700만원으로 늘어난 뒤 법적 대응을 두고 고민한 시는 김씨의 재산이 없어 처와 지인에게 각각 67억원과 4억2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해줬다는 것이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횡령액 전액을 변상 판결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공금

횡령에 따른 피해액의 2배를 초과한 171억여원의 채권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배상 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절차에 의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의 실익을 따져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61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관리를 상

실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배상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공금횡령사건 이후 e-호조 회계시스템 개선과 담당공무원 징계 및 교체 등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T/F팀 구성과 신고 포상금 제를 도입해 횡령공금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진도 팽목항→진도항으로 이름 바꿨다

진도군이 기존 팽목항을 진도항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 군은 17일 "진남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팽목항이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상징성이 높은 진도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바꾼 데 이어 서남해안의 물류·관광·산업시설을 갖춘 다기능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진도항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진도의 미래를 바꾸는 국책사업을 진도항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진도항을 향후 동북아 해양 거점항로 육성시키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영광원전→계마원전 변경 요구 높아

새 명칭 공모 결과 영광원전의 명칭 변경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계마원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영광원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177명이 187건의 변경안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현재 영광원전(영광군 흥농읍 계마리)의 소재지인 '계마'로의 변경 요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전이 들어서면 서 사라진 계동마을에서 명칭을 따온 '계동원전', 한국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은 '한빛원전' 등도 다수 접수됐다. 이 밖에도 서해원전, 천년원전, 우리원전 등의 의견도 있었다. 영광군은 공모안을 정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 의회 심의를 거쳐 2개의 최종안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건의할 방침이다. 영광 주민들은 원전의 잦은 사고로 지역 이미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영광원전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다. /영광=조희성기자 ischo@

해남·완도·진도군, 화장장 공동 건립

향산면 공설추모공원내... 정부에 신청서 제출

해남·완도·진도군이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17일 "완도·진도군과 함께 내년까지 향산면 원호리 일대에 조성할 공설추모공원 내 화장장과 봉안당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군은 지난달 협약을 맺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연계협력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남군 등은 오는 4월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고 공사에 착수할 방침

이다.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을 70%보다 많은 전체 예산의 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비 62억6000만원(토지 매입비 제외)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은 6억2000만원을 3개 지자체가 나눠 낼 수 있어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이번 연계협력사업은 해남·완도·진도에 화장시설이 없어 거리가 먼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남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실제로 해남과 인근 지자체를 아우르는 광역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화장 관련 경제적 부담을 최대 70%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이동안간도 평균 50%(목포 시립화장장 기준) 줄어든다. 해남·완도·진도지역 지난 2011년 사망자수는 1953명으로 이 가운데 793명(40.6%)이 화장을 선택했다. /해남=박희성기자 dia@kwangju.co.kr



군민 화합·단합 호소

함평군공무원노조

함평군공무원노조(위원장 김광열)는 지난 15일 노조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군민의 화합 상생과 군정 동참 등을 호소했다. 함평군공무원노조는 최근 통합평안산업단지 등 군정과 관련 여론 분열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단합을 강조했다. <사진> /함평=황운희기자 hwang@



부상 치료 쇠기러기 방사

아생동물보호협회 전남 해남군지부 회원들이 지난 15일 화산면 간척지에서 쇠기러기를 날려 보내고 있다. <영광군 제공>

'임시 물막이 붕괴' 피해 10억 손배소

영광 염산면 주민들

임시 물막이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광 주민들이 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염산면 송암리 주민 6명은 최근 영광군과 시공사에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물막이 붕괴로 열린 18ha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염전 소유주와 생산 농가들이다. 영광군·시공사와 피해 보상 협의를 해온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은 피해 조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협의, 피해를 본 14농가 가운데 9농가와 총 4억여원 규모의 보상 합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송암2방조제 배수문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물막이 일부가 붕괴, 인근 염전과 농경지 42.9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영광=조희성기자 ischo@

장성에 청렴교육 체험 줄 잇는다

오늘부터 상주 공무원 200명 참가 올들어 6개 기관 450명 다녀가

'청렴교육 1번지' 장성에서 청렴교육을 체험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남도 감사관실을 비롯한 6개 기관 450여명이 청렴교육을 위해 장성을 다녀갔다. 18일부터는 경북 경주시 공무원 2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교육참가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기관도 다양하다. 경북 함안군과 부산시 금천구, 울산 동구청 등 자치단체를 비롯해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와 교육기관의 참여도 속속 확정됐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연일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봄을 맞아 공공기관의 교육연수 일정이 일제히 진행되고 있어 참여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2011년 9월부터 호남을 대표하는 청백리인 아곡(菽谷) 박수량(1491~1554)과 지지당(知止堂) 송흠(1459~1547)을 모티브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추진해 전국적인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1월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청렴과 교육을 연계한 교육관광의 혁신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은 특강과 투어로 나눠 진행된다. 특강은 한화자인 노강 박래호 선생이 아곡과 지지당의 생애와 공직관에 대해 설명하고, 투어는 청백리의 상징인 박수량 선생의 백비 참배와 송흠 선생의 관수정을 둘러보며 청렴 정신을 되새기는 순으로 이뤄진다. 또 청백 한옥에서의 숙박과 전국 최대 편백숲인 축령산 투어를 통해

전남 중부권

장성에 청렴교육 체험 줄 잇는다



장성군의 청렴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축령산 편백숲 투어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청렴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도 갖게 된다. 1년 반 동안 95개 기관에서 188차례에 걸쳐 1만3988명이 참여했다. 기관별로는중앙 부처가 15개 기관 3883명이 44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고, 29개 자치단체에서 공직자 2980명도 교육에 동참했다. 19개 교육기관과 8개 학교, 24개 공기업 또는 단체도 장성에 청백리의 혼을 느꼈다. 교육생들이 늘면서 주변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로 5억원 가까운 매출도 올랐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싱겁게 먹기 운동 나선 강진군

실천협 공식 출범... 건강한 식생활 조성 앞장

강진군이 싱겁게 먹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강진군은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바로 잡아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15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군 싱겁게 먹기 실천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진의료원 박영걸 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공무원, 지역사회단체, 언론인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출범식에서는 군민의 실질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협의회 구성과 2013년 싱겁게 먹기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자

문위원과 기획연구부, 사업부, 홍보부 등으로 구성되며 순차적으로 2013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에는 나트륨 줄이기 활성화 결의대회를 개최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 결의문 낭독과 '싱겁게, 알뜰하게, 건강하게' 저염식 건강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교, 읍면 경로식당, 군청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시설에 나트륨을 30% 줄인 저염식단을 제공해 범군민 싱겁게 먹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5월에는 군민, 공무원,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소등섬 자연산 굴 채취

일출이 장관인 장흥군 용산면 소등섬에서 17일 어린이들이 자연산 굴 채취에 한창이다. 소등섬은 영화 '축제'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장흥군 제공>

강진서 '박상민 사랑나눔 콘서트'

아트홀서 내일밤 8시

가수 박상민 콘서트가 19일 밤 8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재능기부 형태의 기획 콘서트로 무료다. 가수 박상민, 주병선, 유미랑, 사니와 주니, 개그맨 양원경 등이 참여한다. "무기여 잘있거라"로 유명한 박상민은 숨겨진 기부천사로 불리며 생활속의 나눔 철학을 20년 동안 소리없

이 실천하고 있는 가수다. 국민 애창곡 '질갑산'으로 친숙한 가수 주병선씨도 노캐러니 공연을 흔쾌히 수락했다. 특히 이번 '사랑나눔 콘서트'는 강진출신의 사업가인 차영수 ㈜새날 대표와 김현승 ㈜커뮤니케이션 대표의 도움과 지원으로 성사됐다. 강진아트홀은 행사 당일 '사랑나눔 모금함'을 설치해 강진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모금액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il@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합니다

담양 농기센터, 25일까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2013년도 농업인대학 6기 과정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교육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액 지원하고 교육과정은 꽃차 가공 외 식품가공과 농업기초 이론 등 이론

교육과 실습과 견학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담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귀농 희망자, 또는 꽃차 가공 등 식품 가공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원서교부 및 자세한 문의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담당(061-380-3440)으로 하면 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rg@